42. 도우루 강변의 포르투갈 스타일 점심식사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음식이 나왔다. 오이, 방울 토마토, 보라색 양파, 루콜라, 적색 양배추, 상치 등을 가득 담아낸 샐러드와 감자튀김이 먼저 나오고 조금 있으니 포트 와인에 조린 포르투갈 소시지와 함께 바깔라우 요리도 따라 나왔다. 갑자기 테이블이 가득 차버렸다. 밝은 대낮에 보는 포르투갈 음식은 갖가지 색깔이 선명했다. 다양한 색깔처럼 영양도 풍부하겠지?

R은 제일 먼저 감자튀김을 한 조각 집어 들었다. 이 집 감자튀김은 채를 썬 프렌치 프라이 스타일이 아니고 울퉁불퉁 감자 모양 그대로 섬벙섬벙 크게 썰어 튀겼다. 그 위에 굵은 소금과 다진 허브를 뿌려주었다. "맛있어?" 커다란 감자튀김 한 조각을 베어 물은 R에게 물었다. "너무 맛있어. 기름기 하나도 없어." R은 벌써 두 번째 조각을 들고 있었다.

나는 포트 와인에 조린 포르투갈 소시지가 제일 궁금했다. 포르투갈 소시지는 먹어 본 적이 있다. 주로 조개 등을 넣은 해산물 요리에 부재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블랙퍼스트를 먹을 때 팬케이크 등에 곁들여 한 번씩 주문하는 아이템이었다. 레스토랑에서는 제법 커다란 크기의 소시지를 얇게 썰어 베이컨처럼 구워서 내주는데 아주 짜서 항상 다 먹지 못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R의 대학교 시절 룸메이트가 아빠 쪽으로 포르투갈 사람이어서 냉장고에 커다란 포르투갈 소시지를 넣어 놓고 아침에 몇 조각씩 구워 먹곤 한다고 들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향수가 어린 음식일지도 모르겠다.

그 포르투갈 소시지를 그냥 먹기에도 아까운 포트 와인에 조리다니 정말 포트 와인의 원산지다운 요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요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음식이었다. 소시지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와인에 그냥 푹 조려낸 듯했고 얇은 냄비 바닥에는 조림 소스가 약간 고여 있었다. 기름기가 쏙 빠진 듯한 소시지 조각들은 반질반질 윤이 났다.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소시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와인을 마시는지 못지 않게 그 와인에 곁들여 어떤 안주를 먹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와인 페어링에 유난을 떨곤 한다. 이 와인 조림 포르투갈 소시지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면서(비싼 와인이 아니어도 정말 괜찮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심심하면 한 조각씩 집어 먹는 맛난 안주였다. 와인은 사양하고 맥주로 마시겠다는 사람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안주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짜디짠 포르투갈 소시지는 간데 없고 와인 향이 은근하게 배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의외로 소박하기 그지없는 매력적인 음식이 거기에 있었다. 포트 와인을 넣어서 단맛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달지 않아서 의외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 온 후 나는 집에서 이 포르투갈 소시지 포트 와인 조림을 만들어 보았다. 물론 포르투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고 아무리 애써도 그 맛을 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테친 시금치 위에 팬에서 구워 낸 대구를 한 조각 올리고 구운 알감자를 곁들인 다음 알록달록 파프리카와 양파를 채 썰어 얹어 낸 바깔라우 요리도 담백하고 맛있었다. 요리 전체가 올리브 기름에 헤엄치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어찌 된 것인지 하나도 느끼하지 않아서 신기했고 대구도 말린 것을 불려서 요리한 듯했는데 어떻게 요리했는지 한없이 부드럽기만 했다. 먹는 것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우리는 나온 요리를 깨끗이 다 먹고 샴페인도 다 마시고 만족한 표정으로 도우루 강을 바라 보았다.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했던 날이다. 배가 불러 기운이 넘쳤고 마음은 풍요로웠다. 파랗게 맑은 날 햇볕 가득한 도우루 강변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소박한 포르투갈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던 그 장면은 두고두고 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u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562) 237-8900 OC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PT) / 작업치료 (OT) /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발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 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